



이차전지 Analyst 권준수 wkudul1222@kiwoom.com

하나기술(299030)

NDR 후기: 수주 모멘텀 본격화에 따른 증장기 실적 가시성 확대

◎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수주 모멘텀 본격화

>> 동사는 이차전지 자동화 장비를 국내 3사에 납품하고 있으며, 모든 폼팩터(원형/각형/파우치) 전지용 설비 공급 가능. 동사의 차별점은 Turn Key(조립~활성화 공정) 및 FMS(Formation Management System) 방식으로도 제품 공급이 가능하여 유럽/북미 신규 배터리 스타트업에 포함한 해외 고객사 비중이 높은 상황. 특히 국내 대비 해외 고객사향 장비 공급 시 수익성이 높아 해외 고객사 비중 상승은 높은 수익성으로 귀결. 최근 장비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, 장비업체 중 턴키 역량과 해외 고객사향 비중 확대가 기대되는 업체에 주목할 필요

>> 최근 아시아 지역향 조립~활성화 공정 턴키 수주 공시(1,724억원/23.06.27) 등 올해 상반기 약 3,800억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, 향후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수주 확대 기대. 작년 2,105억원 수준에서 올해 약 7,500억원(+256%YoY)까지 증가할 전망. 주목할만한 점은, 올해 수주잔고 중 해외고객사 비중이 75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기대

◎ 신규 장비 비즈니스 및 소재 사업 확대를 통한 증장기 모멘텀 확보

>> 동사는 주력 사업인 이차전지 양산 자동화 설비 외 열면취 Glass 가공 및 폐배터리 재사용/재활용 장비 사업도 영위. 이미 상용화 후 매출 일부 인식 중이나,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는 시점은 24~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기대. 차세대 전지로는 반고체/전고체/46파이 전지용 장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, 반고체 전지의 경우 해외 배터리사에 이미 파일럿 라인 공급 후 추후 양산 발주 기대되는 상황. 또한, 황화리튬 및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등 소재사업도 준비중에 있어, 26년 이후 시장 개화 시 사업 다변화 기대

◎ 배터리 투자 사이클 도래, 높은 해외 고객사 비중 및 수주잔고로 실적 성장 기대

>>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전망. 대부분의 장비 납품 일정이 3~4분기에 예정되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. 국내 및 해외 신규 발주 예상됨에 따라 수주 모멘텀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. 증장기적으로도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고객사의 CAPA 증설에 따른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장비 리드타임 감안 시(국내 6개월~1년, 해외 1년~1.5년 추정) 24~25년 가파른 성장세 기대. 최근 장비 업체 내 경쟁 심화 및 전방 배터리 공장 증설 스케줄 변경 등으로 매출 인식 시점 지연 우려가 상존하나, 동사는 고객사 다변화, 높은 해외 고객사 비중 및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을 전망

하나기술 경쟁력: 1) Turn Key 공급, 2) 모든 품팩터 공급, 3) 소프트웨어 역량, 4) 차세대 설비, 5) 배터리 3사 공급

Beyond the Manufacturing Equipment
Total Engineering Solution Provid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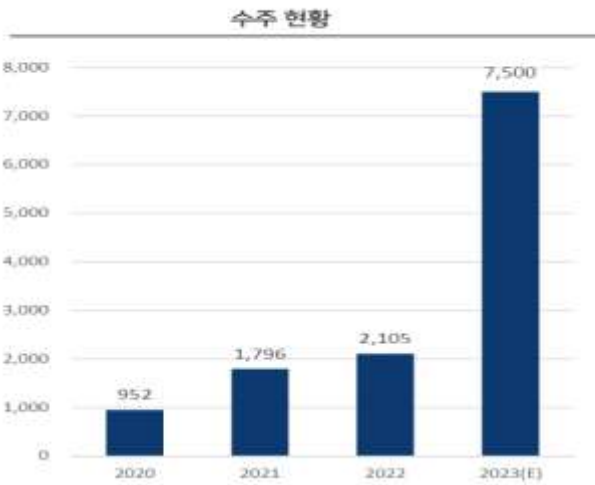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기술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하나기술 수주잔고 22년 2,105억원 → 23년 7,500억원 목표

2023년 수주 목표 : 7,500억

- 2022년 수주 2,105억 대비 300% 이상의 신규수주 증가 예상



자료: 하나기술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8월 2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